

Candles:  
Thursday Morning Email Devotion for December 14, 2023

Aloha MPC ‘Ohana,

At this time of year, it seems like a lot of candles get lit. Here at MPC, for example, we light Advent candles during the four weeks leading up to Christmas. Meanwhile, our Jewish sisters and brothers are celebrating Hanukkah, which involves lighting candles on the Menorah for a series of many nights. And, interestingly, if Jesus Himself lit any candles at this time of the year, they would’ve been Hanukkah candles too – because John 10:22-23 tells us that Jesus observed Hanukkah (the “Feast of Dedication” mentioned in those verses *is* Hanukkah).

But what’s the point of all these candles anyway? Of course they’re symbols. The Advent candles symbolize hope, peace, joy, and love. The Christ Candle represents Jesus Himself – the Light of the World. And the Hanukkah candles call to mind the episode in Jewish history when “God’s light shined the darkness, and the darkness could not overcome it.”

But the thing is, by themselves, all any of these candles can do is *remind* us of things like those. By themselves, the candles are just symbols, spiritual mnemonic devices, in other words. And I personally think celebrating the coming of Christ to earth needs to be more than just something I remember.

Because I think the story of Jesus birth really calls upon us, as believers, to go and live what it means. To really give “glory to God in the highest” and to really enact “peace on earth, goodwill to all.”

Which is maybe why I was taken with something that I recently read by the great African-American theologian Howard Thurman. In one of his sermons, Howard Thurman said that when we do certain things out in the world, it’s like lighting a “candle.” A candle that really causes more of God’s light to shine “on earth as it does in heaven.” We light such “candles,” Howard Thurman said, whenever and wherever we do things that actually bring more of Jesus’ joy and hope, courage and grace, peace and love into being in our world. And we keep these candles burning by doing such things, not just in December, but every day all year long.

And so, Howard Thurman concluded his message like this: “I will light candles this Christmas. Candles of joy, despite all the sadness. Candles of hope where despair keeps watch. Candles of courage where fear is ever present. Candles of peace for tempest-tossed days. Candles of grace to ease heavy burdens. Candles of love to inspire all of my living. Candles that will burn all year long.”

What about you? Will you light those kinds of “candles” yourself? I pray that I will, this Christmas and always.

Me ke aloha,  
Pastor Ron

양초:  
2023년 12월 14일 목요일 아침 이메일 묵상

알로하 MPC '오하나,  
이맘때는 촛불이 많이 켜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MPC에서는 크리스마스까지 4주 동안 강림절 촛불을 켵니다.  
한편, 우리 유대인 자매와 형제들은 여러 밤 동안 메노라에 촛불을 켜는 하누카를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만약 예수님께서 연중 이맘때에 어떤 촛불에 불을 붙이셨다면, 그것은 또한 하누카 촛불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0:22-23은 예수님께서 하누카(그 구절들에 언급된 “수전절”)를 지키셨다고 알려 주기 때문입니다. 하누카) \_입니다\_ .  
하지만 어쨌든 이 모든 양초의 요점은 무엇입니까?  
물론 그들의 상징입니다.  
강림절 촛불은 희망, 평화, 기쁨, 사랑을 상징합니다.  
그리스도 양초는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 자신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하누카 촛불은 유대 역사에서 “하나님의 빛이 어둠을 비추되 어둠이 이를 이기지 못하더라”라는 에피소드를 생각나게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양초가 그 자체로 할 수 있는 일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_상기시키는\_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즉, 양초는 그 자체로 상징, 영적 기억 장치일 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것을 축하하는 것이 단지 제가 기억하는 것 이상이  
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예수 탄생 이야기가 신자로서 우리에게 가서 그것이 의미하는 바대로 살도록 요구하  
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땅에서는 평화, 모든 사람에게 선의”를 실  
제로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최근에 위대한 아프리카계 미국인 신학자 하워드 서먼(Howard Thurman)이 읽은 내용  
에 매료된 이유일 것입니다.  
설교 중 하워드 서먼(Howard Thurman)은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할 때 그것은 마치 “촛불”을  
켜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빛을 더 많이 비추게 하는 촛불입니다.  
하워드 서먼(Howard Thurman)은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의 기쁨과 희망, 용기와 은혜, 평화  
와 사랑을 실제로 이 세상에 더 많이 가져오는 일을 하면서 그러한 “촛불”을 켵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12월뿐만 아니라 일년 내내 매일 이러한 일을 함으로써 이 촛불을 계속 타오르게 합니  
다.  
그래서 Howard Thurman은 그의 메시지를 다음과 같이 마무리했습니다. “나는 이번 크리스마스에  
촛불을 켵 것입니다.  
모든 슬픔에도 불구하고 기쁨의 촛불.  
절망이 지켜주는 희망의 촛불.

두려움이 존재하는 곳에는 용기의 촛불이 있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날을 위한 평화의 촛불입니다.  
무거운 짐을 덜어주는 은혜의 촛불.  
내 삶 전체에 영감을 주는 사랑의 양초.  
일년 내내 타오르는 양초.”  
당신은 어때요?  
그런 종류의 “촛불”을 당신 스스로 켜시겠습니까?  
이번 성탄절에도 그리고 언제나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나 알로하,  
론 목사